

상하이 취업박람회

세스나, 중국 진출 한인기업 대상

“중국 지사 인재 채용을 상하이에서 직접 하세요.”

리쿠르팅 업체 세스나(사장 김성민)는 다음달 26일 중국 상하이 훙차오의 셰라톤 호텔에서 현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1회 ‘잡월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김성민 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미주 한인기업은 그동안

현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미주한인 기업의 특성상 중국어와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까지 가능한 인재가 다수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박람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패션 주얼리, 봉제, 뷰티 써플라이, 섬유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의 미주 한인 기업들에게는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세스나는 상하이 채용박람회에 이어 11월 7일에 뉴저지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동부지역 한인 인재를 위한 전문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brian_lee@jobworldusa.com 또는 201-567-8886.

한정연 기자

hjy_ny@koreadaily.com